

#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 순조

한국어항협회가 지난 7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평도 꽃게어장 정화사업은 연평도 주변에서 바다 속 폐어구, 어망 등을 수거하여 꽃게 산란장 보호와 선박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억원을 투입 8월말까지 총 800톤을 수거하는 국가적 어장정화 사업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정화선 3척, 예인선 2척, 크레인바지선 2척, 현지어선 45척을 2개 선단으로 나눠 수거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 소속 크린오션호의 총 지휘로 1차 수거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난 7월 22일 현재 당초 우려와는 달리 어업인들이 설치해 놓았던 꽃게 어구를 자진 철거, 순조로운 수거 작업이 진행되어 일일 평균 10톤 내외, 총 78톤을 수거했다.

23일에는 해양오염방제조합 정화선, 예선, 부선 각1척씩으로 한 1개선단이 추가로 투입돼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과 2002년에 서해 특정해역 주변에 년 5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부분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매년 유실되는 어구가 많아 아직도 많은 량의 폐어망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중 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가 바다 속에 가라앉아 꽃게의 산란 및 서식장을 파괴시키는 어족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경북 울진대게 어장에서 폐어구를 수거한 이후, 426톤(전년대비 1.9배 증가)의 어획고를 올리는 획기적인 자원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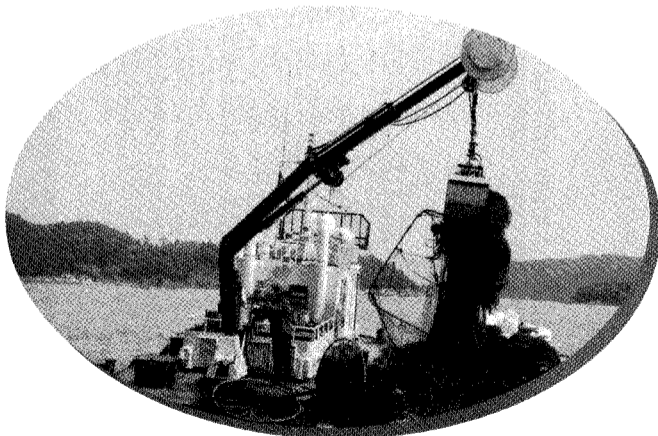
효과를 거두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울진 대게어장, 고성군 명태어장 등 전국 55개 주요어장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한국어항 시찰

일본의 (사)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관계자 30명은 지난 7월 9일 연수자 한국을 방문, 부산 기장 학리항을 시찰하고 한국 어항관계자들과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어항협회 박원길 기술상무 이사가 일본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방문객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 어항청소선·크린오션호 상반기, 오폐물 811톤 수거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과 다기능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크린오션호가 올해 상반기 어항과 연안에 총 394일간 출동, 811.22톤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내용별로 보면 부유물 125.22톤, 침전물 71.1톤, 항행장애물 614.9톤을 처리하였다.